

# 광주·전남 외국인 유학생 '급증'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입 인 구 절벽'과 재정위기 타격을 위해 교육부와 각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광주·전남 대학가에도 해마다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한류 열풍과 경제 성장에 힘입어 베트남 유학생들이 '중국 대세론'을 꺾는 등 유학생 지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재정 위기를 줄이고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반면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불법 체류가 줄지 않고 한국어 능력보다는 무분별한 유치로 '학위장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밀한 유치와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광주·전남 대학들에 따르면 국내 학생수 감소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주력하면서 5~6년 전만 하더라도 3000명 수준에 머물렀던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7000~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015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국가와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명(올해 15만명 안팎)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이후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호남 거점대학인 전남대의 경우 2013년부터 4년간 8000명대를 유지해 오다 2017년 처음으로 10000명을 돌파한 뒤 3년째 '외국인 유학생 10000명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최초 민립대학인 조선대 역시 2016년 253명이던 것이 올해 1163명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중국 특화대학인 호남대에도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9000명 가까운 유학생이 수학 중이고, 동신대에도 유학생 수가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광주대에도 올해 1학기 학부생, 교환학생, 대학원생 합쳐 262명이 재학중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여전히 대세인 가운데 베트남 유학생들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곳곳에서 역전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조선대의 경우 49개국에서 1163명이 유학생 신분으로 입학해 학부, 대학원, 한국어학원, 교환학과 등에서 수학중인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베트남 유학생이 중국유학생을 앞질렀다. 지난해까지 1000명 미만이던 베트남 유학생은 올해 488명으로 폭증해 전체 유학생의 41.9%를 점유하며 중국(384명, 33.0%)을 2위로 따돌렸다.

동신대도 2017년 142명으로 중국(138명)을 처음으로 추월한 뒤 이듬해에는 368명으로 전체 76.3%를 점

## 5~6년만에 2배 이상 증가, 1만명 돌파 시간문제 중국 대세론 속 '한류 여파' 베트남 가파른 증가 재정난 해소·국제경쟁력 vs 불법체류·학위장사

유하며 중국 유학생을 3배 이상 앞질렀다.

광주대에서도 올 1학기 110명(41.9%)으로 중국에 이어 2위고, 전남대에서는 학부, 대학원생 합쳐 146명으로 중국,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차이나프렌들리 정책을 펴고 있는 호남대에서도 최근 3년새 10% 안팎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유학생의 증가세는 최근 10년간의 자국의 고속성장과 그 중심에 한국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경제적 배경 외에 한류드라마, 케이팝 인기, 여기에 '박항서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한국행이 급증하

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남대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마친 베트남 유학생이 고국에서 정식 교수로 발령받는 등 학문적 성과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없진 않다.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불법체류 유학생은 광주 346명, 전남이 162명에 이르고 있고 중도탈락자도 대학마다 수십명에 달해 골치거리로 자리잡고 있다.

전하나 부탁 등 기초회화 수준인 한국어능력시험 2급만 있으면 입학이 가능해지니 문턱은 낮은 반면 졸업할 때는 뉴스나 기사를 이해할

수 있는 4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돼 있어 한국어 수업 부족이나 부실 유학 논란도 늘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선대, 광주여대, 호남대, 목포해양대 등이 불법 체류율 1% 미만 인종대학으로 선정된 반면 전남지역 일부 대학은 10%를 초과해 유학비자 제한대학으로 분류돼 부실 관리가 여전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등록금 등으로 매년 10억원에서 50억원 가량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점은 일거양득으로 긍정적이나 불법 체류나 학자금 상환하지 않고 떠나는 '떡볶이 유학생' 관리, 수업 내실화 등에도 보다 신경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 대학 고위 관계자도 "외국인 유학생은 동전의 양면, 양날의 칼과도 같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조인호·김정환 기자



제주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 23일 오전 환경단체 반대와 경관 훼손 논란 등으로 중단됐던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7개월만에 재개된 가운데 벌목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 M주택산업 회장 불법자금 전달 고발돼

한 회장 측근, 전 시·구청장에게 전달 시인

M주택산업 한 모 회장이 계열사 설립과정에서 전 시장과 구청장에게 거액의 불법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광주 서부서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 최 모씨는 지난 21일 광주 서부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매월동 소재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 시장 입주신청 부여 조건으로 박 모

전 광주광역시청의 처조카 정 모씨를 통해 4억 원을 전달하고 광산구 수완동 소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한두레농산,계열사) 국고보조금(30억5천만원) 사업의 추진 및 성사와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현 한두레농산,계열사)의 매립과정 특혜 등을 조건으로 재무담당이었던 장 모씨에게 10억 원을 전

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 모 전 광산구청장은 광산구 수완지구 모아벨가아파트 준공 및 한두레스포츠센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허가권과 관련하여 특혜를 조건으로 5000만원을 수표로 전달받은 것으로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두레청과 고발인 최 씨에게 한두레 회장의 측근이 회장 지시에 의해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 털어 놓으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서은홍 기자

## 통발 조업하던 30대 어민 해상 추락해 숨져

해남군 어불도 인근 해상에서 30대 어민이 조업하던 중 해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안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31분께 해남군 어불도 북서쪽 7km 해상에서 H 호(2.53t)에 승선해 통발 조업 중이던 하 모(34) 씨가 해상으로 추락했다.

하 씨는 이날 아버지(57)와 함께 조업하고 있었으며, 갑자기 왼쪽 발쪽에 통발 줄이 걸리면서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 씨는 인근에서 조업하던 K 호(2.01t)가 끊어진 H 호의 통발 줄 발견하고 끌어 올리던 중 오후 12시 34분께 발견됐다.

안도 해경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하 씨를 해남의 한 병원으로 옮겼으나 회생하지 못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원도=김광수 기자

## '음주 의심 신고' 경찰 추격 끝 운전자 검거

민취 운전자가 시민의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15분께부터 지정 사이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민취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도산동 일대 도로 10여km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차량 번호를 조회했다. 순찰차 3대를 배치해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지시했다. 불응하고 달아난 A씨를 8km 가량 쫓아 붙잡았다.

임형택 기자

## 선착장서 차량에 치인 어린 남매 2명 사상

신안의 선착장에서 차량이 길을 건너던 어린 남매를 치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2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전 7시32분께 신안군 암태면 한 선착장에서 김모(60·여)씨가 몰던 차량이 A(6)군과 누나 B(7)양을 치었다.

이 사고로 A군이 숨졌으며 B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B양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매가 인근 화장실에 들른 뒤 부모의 차량으로 되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 잡은 현직 경찰관 적발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오후 9시43분께 부천과 시흥의 경계인 부천시 소사고교 앞 도로에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9%였다.

A씨는 시흥 대야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4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경찰서는 사건 처리와 별개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청주 노래방 비상구서 5명 추락 2명 중태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 2층 비상구에서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오후 10시10분께 청주시 사창동의 노래방에서 회사 회식을 하던 A(26)씨 등 5명이 지상 3m 높이의 비상구에서 비탈이로 떨어졌다.

이들은 노래방 복도에서 다룬던 A씨 등 2명을 말리다 함께 비상구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떨어진 B(39)씨 등 2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당시 비상구 문은 열려 있었고, 비상구 주변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